

교과서 젠더 개념에 대한 성소수자 예비교사의 인식 연구*

조대훈**

요약

본 연구는 수도권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4명의 성소수자 예비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및 <사회·문화> 교과서 젠더 관련 단원에 대한 성소수자 예비교사의 인식과 관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소수자 예비교사들은 해당 교과서가 복합적인 개념으로서의 젠더 스펙트럼을 과대 단순화하거나 축약하고 있고, 성소수자 집단의 존재를 삭제하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성소수자 개념이 인권 옹호의 목적이 아닌 토론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해당 교과서가 성소수자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 경향을 보이며, 혐오와 차별의 관행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관한 거시적(사회구조적, 제도적 또는 역사적) 접근을 결여함을 지적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교사의 위치에서 젠더 개념을 수업 주제로 다룰 경우 자기 검열과 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여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분위기, 학교 안 성소수자 지지 및 상담 시스템의 부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 이 논문은 2021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tcjiang@sungshin.ac.kr

성소수자 개념에 대한 영 교육과정의 실제 효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과정 그리고 성소수자 예비교사 관련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젠더, 젠더교육, 성소수자 예비교사, 성소수자 인권, 교과서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7차 교육과정기 이후 한국의 국가 교육과정은 국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민주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하며 변화해 왔지만, 그 변화의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온 교육과정의 주제는 바로 ‘성소수자’와 그들의 인권이었다.¹⁾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는 국내적으로 페미니즘의 확산과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르게 높아졌고, 성소수자는 대중매체 및 대중문화의 중요한 코드로 등장하였다. 또한, 2012년 유엔(UN)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선언, 2013년 유네스코 가이드북 「Educational Sector Responses to Homophobic Bullying」(유네스코, 2013), 그리고 50년 만에 착수된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 개정 작업 등은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에 입각한 젠더 평등과 젠더 변혁적

1) 본 논문에서 ‘성소수자’는 모든 사회에서 다수를 구성하는 이성애자들과 다른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또는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을 지닌 사람을 통칭한다. 성소수자는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or Questioner)로 흔히 표현되며, 최근 간성을 의미하는 I(= Intersex) 그리고 무성애자를 지칭하는 A(= Asexual)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LGBTQIA’로도 표기된다.

접근(gender-transformative approach)이 학교 교육에 접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교육은 이 같은 젠더 교육의 흐름을 간과해 왔다.

일찍이 조대훈(2006)의 연구에서 이성애 규범성의 이데올로기에 근간한 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비판하며 ‘침묵의 교육과정’이라 명명했던 암울한 상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지되었다.²⁾ 한국 성소수자 학생 인권 운동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1997년 6월 서울 탑골공원 성소수자 활동가 시위³⁾ 이후 20여 년이 흘렀지만, 학교 안 성소수자 학생 및 교사의 인권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다양한 혐오와 차별의 관행이 목격되고 있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4;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등·공동법률사무소 이채, 2022). 학교 안 성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는 관련 교육 법률의 미비, 그리고 일부 종교·보수단체의 성평등 및 성소수자 혐오 운동의 영향들과 무관하지 않다(중앙일보, 2022년 11월 9일자; 오마이뉴스, 2022년 10월 8일자; 한겨레21, 2014년 10월 15일자).

한국의 교육정책 결정자, 교사, 연구자, 시민운동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의무가 있다. 공식적 교육과정

2) 단적으로 2022년 12월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과정에서 교육부는 일부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진이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제시했던 ‘성평등’ 단어를 ‘양성평등’으로, ‘성소수자’ 단어를 ‘성별’로 직권 수정하였다.

3) 1997년 서울 탑골공원 시위는 당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의 동성애 혐오와 차별 문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한국대학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일명 동인협)’가 주도한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 거리 시위였다(한국성소수자연구회, 2019: 282-284).

에서 전형적인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의 대상의 대상인 성소수자의 목소리, 경험, 인권 등의 주제를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교육에 접목시키는 학문적, 교육적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목소리와 관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 특히 학교 교육을 성소수자 청소년, 교사, 행정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경험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희소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과서, 젠더 그리고 (예비 및 현직) 성소수자 연구의 접점에서 시작되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성소수자 예비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고등학교 젠더 관련 단원의 수업 경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교과서 젠더 개념 구성에 관한 인식과 관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학교 젠더 교육과 시민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성소수자로서의 자신의 학교 생활 경험에 대해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학습자로서 성소수자 예비교사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과서 내 젠더 관련 단원 내용의 수업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셋째, 성소수자 예비교사들은 2009 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의 젠더 단원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넷째, 예비교사들은 현직 교사가 되었을 때 해당 젠더 관련 단원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교수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젠더와 퀴어 이론

성소수자 관련 젠더 이론은 퀴어 이론(queer theory)으로 대변된다. 퀴어 이론은 사회적 구성주의와 후기구조주의 철학의 이론적 영향과 더불어, 제3차 페미니즘 운동기에 크게 대두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Post-modern Feminism)과 학문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했다(Gamson, 2000).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에 내재한 이분법적 젠더관, 그리고 다양한 배경 변인에 따라 중층적으로 나타나는 젠더 정체성의 특성을 간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고정되고 단일한 젠더 정체성과 관련 경험을 강조하는 본질주의적 입장을 해체하면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체성과 경험이 개인과 집단의 형태로 존재함을 강조하였는데, 이 점에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퀴어 이론과 학문적 접점을 지닌다.

퀴어 이론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이성애 규범성과 젠더의 고정성에 대한 해체를 시도한다. 우선 이성애적 정체성과 동성애적 정체성 모두를 단순히 사회적 지위나 정체성이 아닌, 인간의

4) 부연하면, 제1차와 제2차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의 참정권과 불리한 임금 및 노동 환경 개선, 성적 자기결정권의 획득에 매진했다면, 1990년대 이후 뚜렷한 흐름을 보인 제3차 페미니즘 운동은 인종, 계급, 문화적 다양성, 섹슈얼리티 개념에 기초하여 여성 안의 다양성, 중층적 정체성에 주목했다(라일, 2014; 기든스, 서튼, 2018). 이에 더하여 최근 디지털 매체와 소셜미디어 등의 가상 공간에서 펼쳐지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결합된 페미니즘 실천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제4차 페미니즘 운동으로 간주하기도 한다(Chamberlain, 2017; Cochrane, 2013).

신체와 섹슈얼리티 개념을 규정하는 ‘언어’이자 ‘지식의 범주’로 규정한다. 퀴어 이론은 젠더와 성소수자에 관한 연구가 한 사회 전체가 어떻게 신체, 욕망, 사회적 관계, 문화, 그리고 사회 제도 등을 ‘성화(sexualizing)’하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Seidman, 1996: 12-13).

만일 어떤 사람이 ‘여성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며, 따라서 그 용어는 완전한 의미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젠더화된 ‘사람’이 젠더의 특정한 고유장치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젠더는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늘 가변적이고 모순적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이며, 담론적으로 설립된 정체성의 인종적, 계급적, 민족적, 성적, 지역적 양상들과 부단히 마주치기 때문이다(Butler, 1990/2008: 89).

또한, 퀴어 이론은 젠더 또는 섹슈얼리티가 고정적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대표 주자는 Judith Butler이다. 20여 년 전 발간된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 「젠더 허물기(Undoing Gender)」 등의 저서에서 Butler는 생물학적으로 고정불변으로 여겨졌던 섹스의 개념 범주를 거부하고, ‘섹스 또한 젠더’임을 주장하였다(버틀러, 2008; 2015). 즉,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범주는 권력 체계의 생산물이며, 그것에 대해 어떠한 불변적 정체성을 전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Butler는 젠더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제시하며, 젠더는 무대 위의 배우가 행하는 연기(performance)처럼 언제나 행위의 결과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여기서 ‘수행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목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한다는 의미이며, 인간

이 젠더의 본질이라 여겼던 개별적 특성들은 일련의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다(버틀러, 2008: 87). 그리고 「젠더 허물기」에서 Butler는 이전 저서인 「젠더 트러블」의 주요 관심사였던 개개인의 복합적인 젠더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켜, 젠더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규제와 관계성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다(버틀러, 2015). 권력 행위는 단순한 인간 개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차이 속에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종의 정치적 ‘합주 행위(acting in concert)’라 보았다(조준현, 2017: 247-248).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이분법적 접근을 해체하는 퀴어 이론을 따를 경우, 젠더는 일종의 스펙트럼으로서 훨씬 더 세분화 되고 유동적인 하위 범주와 의미 그리고 형태를 띠게 된다.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의 주류적 분류를 뛰어넘어, 트랜스 여성(예: Male to Female, MTF), 트랜스 남성(예: Female to Male, FTM), 범성애자(pansexual) 또는 회색성애자(graysexual), 성적지향성과 로맨틱 지향성의 구분처럼, 젠더 정체성 재현 방식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인정한다.⁵⁾

퀴어 이론은 교육과정 주제로서의 성소수자, 그리고 학교 안 교육 주체로서의 성소수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며, 교과서 안 젠더 개념에 대한 성소수자 예비교사의 인식을 탐색하려는 본 연구에 대해서도 중요한 분석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5) 젠더 스펙트럼에 관한 다양한 용어과 분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독자는 애슐리 마텔(2017)의 안내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2. 교육과정 주제로서의 성소수자 관련 연구 동향

서구 교육계에서는 1990년대 이후 성소수자 학생과 성소수자 교사
에 초점을 둔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사회과교육 관련 학술지
특집호에 게재된 Bickmore(2002), Crocco(2002) 및 Thornton(2002) 등의
연구는 미국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모두에 깊
숙이 스며든 호모포비아를 강력히 비판하며, 교과교육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Mayo(2016)는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정치 쟁점화가 되어버린 성소수자의 위상과 더불어 학교 안 성소수
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
다. 또한, Graves(2009)의 연구는 냉전 시기(1956-1965) 미국 플로리다
주 입법조사위원회가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성소수자 교사들을 숙
청한 과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학교 안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
한 역사적 성찰을 수행하였다. Conrad(2020)는 성소수자 교사가 자신
의 성별 정체성을 학생들에게 드러내는 일이 젠더 교육 차원에서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교직 사회
안의 성소수자 교사들의 정체성과 수업 행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Ferfolja(2018), Jackson(2007), Simons, Hahn, Pope와 Russell(2021), 그리고
Wright, Smith와 Whitney(2019) 등의 연구는 성소수자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주요 단계들,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성소수자 교사들이
직면하는 정치적·제도적 장애물, 갈등과 타협의 전략과 결과들을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권에서 축적된 성소수자 관련 연구와 상반되게, 국내

의 학교 안 성소수자에 관한 연구물은 지극히 희소하다. 청소년 성소수자 및 성인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물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교육과정 및 교실수업) 또는 교사교육의 차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과 교사의 경험과 관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를 접하기는 어렵다. 정리해 보면, 성소수자 관련 국내 교육 연구물은 1)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연구(구정화, 2015; 박가나, 2016; 설규주, 2013; 심상보, 2014; 우현정, 박선웅, 2018; 조대훈, 2006, 2022), 2) 성소수자에 대한 학생 또는 교사의 인식/태도를 다룬 연구(구정화, 2013; 박선운, 박윤경, 2021; 신경희, 2018; 조대훈, 2011), 그리고 3) 성소수자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은 극소수의 경험 연구(예: 주재홍, 2017; 신경희, 2019)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하위 연구들은 강력한 이성애 규범성으로 인해 성소수자 개념이 소수자 인권의 차원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경향, 그리고 학교 안 성소수자 학생들이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범위 및 다양성 측면에서 이상의 성소수자 관련 국내 교육 연구물은 크게 두 가지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교육 주체로서 성소수자 학생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성소수자 학생에게 공식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묘사된 바람직한 시민의 개념은 어떻게 비칠까? 성소수자 학생들은 교실에서 교사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할 자료를 제공한 연구를 찾기 힘들다. 둘째, 교사 관련 연구문헌 중에서 교육의 핵심 주체로서 성소수자 교사의 젠더와 교육 활동에 관한 경험 연구 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성소수자 교사의 관점에서 직업 생활 공간으로서 학교가 가지는 의미, 성소수자 교사의 수업 활동, 성소수자 교

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맥락 및 연구참여자 소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 소재 수정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 4인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 12월, 연구자는 ‘성소수자 예비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및 시민의 개념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문을 해당 사범대학 개별 학과 학생회에 발송하였다. 각 학과 학생회 내부 SNS 단독방을 통해 공지된 해당 안내문에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함께, 연구참여의 조건들(예: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지닌 예비교사, 5학기 이상 재학생 선호, 연구참여자의 기본 의무 및 권리 등)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2022년 2월 말까지 총 6명의 사범대학 재학생이 연구자가 제공한 네이버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초점과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이 중 4명을 본 연구의 주된 연구참여자로 최종 선정하고 이들과의 면담 결과를 분석하였다.⁶⁾ 네 명의 연구참여자들은 동일 대학교 사

6) 연구 초기, 본 연구에 참여할 성소수자 예비교사 모집을 위해 수도권 소재 4개 대학의 성소수자 동아리 대표연락처를 통해 모집 안내문을 발송하여 연구참여자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모 여대의 4명 이외에 남녀공학 대학의 참가자는 2명에 그쳤으며, 연구의 초점과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사범대학 예비교사 4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남녀공학 대학에 재학 중인 연

범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들이었으며, 이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생활 및 교육환경 면에서 유사한 배경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프로파일⁷⁾

참여자 성명	단과대학명 (전공계열)	학번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동아리 활동	진로계획
예슬	사범대학 (일반사회, 윤리, 한문 등 교과교육 전공)	17학번	레즈비언	있음	교직
누리		18학번	레즈비언과 무성애자의 사이	있음	교직
유진		19학번	레즈비언	있음	교직
혜성		19학번	양성애자	있음	교직

연구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수정여자대학교는 일제 강점기 시절 개교 이래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을 추구해 왔으며, 특히 21세기에 접어들어 국가 및 사회에 공헌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사범대학의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등을 포함한 주요 법령에 제시된 성인지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사범대학 차원에서 다양한 성평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예: 교수법 워크숍, 학과 특강, 예비교사 주도 비교과 프로젝트)을 재학생들에게

구참여자 2인(남성 동성애자)과의 심층면담 결과는 본 논문의 핵심 연구 참여자 면담 자료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7) 본 논문에 등장하는 대학명 및 인명은 모두 가명임을 밝힌다.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속한 3개학과 중 한 문교육과를 제외한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는 성평등 및 젠더 감수성을 주요 강의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전공과목을 보유하고 있었다.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기준으로 수정여자대학교에는 진보적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학생자치동아리가 다양하게 개설·운영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성소수자 동아리도 포함되었다. 네 명의 연구참여자들은 해당 동아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성소수자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험을 가졌다.

2. 연구방법론: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교육 분야의 질적 연구자로서 본 연구자는 교과서 내 젠더 및 성소수자 관련 내용에 있어 그동안 교육과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성소수자 연구참여자의 목소리에 더욱 주목하였다(Bogdan and Biklen, 2007; LeCompte and Preissle, 1993). 계량화된 자료 수집보다는 학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학습자 그리고 교사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둘째, 본 연구는 교과서 내 젠더 개념을 중심을 수집된 심층 면담 자료를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함께 구성된 텍스트로 간주하였다. 즉,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활용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이 대화에서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의 발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 그리고 과거 체험했던 일화들을 소환하고 이를 주관적으로 재구성한다. 이 재구성 작업의 결과를 연구자는 면

담 전사 자료로 문서화 하고, 더 나아가 주제별 약호화(coding)와 주제(theme)를 생성한다. Kvale(1996)의 주장을 빌자면, 심층 면담 자료는 땅속에 묻혀 있던 유물을 ‘발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설명과 해결방안이 필요한 현상에 대한 인간의 상호주관적인 해석과 재현의 산물인 것이다.

본 연구는 <표 2>에 기술된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를 거쳤다.

<표 2>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 개요

연구 단계	단계별 주요 연구 활동
연구참여자 모집	▪ 수도권 사범대학 대상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문 발송 ▪ 연구참여자 모집 마감 및 연구참여자 선정 ▪ 연구참여동의서 작성 및 면담 일정 조율
↓ ↓ ↓	
심층 면담 실시	[1단계 면담] : 예비교사 생애사 ▪ 연구참여자의 생애사(고등학교 및 대학교 생활) 질문 ▪ 젠더에 관한 연구참여자의 관점 탐색
	[2단계 면담] : 연구주제 관련 경험에 대한 세부 질문 ▪ 2009/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문화」 및 「생활과 윤리」 교과서 내 젠더 관련 면담 실시
	[3단계 면담] : 연구참여자 경험에 대한 반성/성찰 ▪ 1, 2차 면담 내용에 기초한 추가 질문 및 확인 ▪ 교과서 젠더 개념에 대한 예비교사의 성찰
	↓ ↓ ↓
면담자료 분석	▪ 면담 자료 1차 분석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외부검토자 자문(현직교사 1인 및 성소수자 예비교사 1인) ▪ 면담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 ▪ 젠더 관련 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개선방안 논의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연구 주제 관련 선행연구 및 공식 문서에 관한 문헌 분석과 질적연구방법론에 기초한 심층 면담 방법을 적용하였다. 국내 성소수자 인권 현황 및 학교 교육과 교사교육에서의 성소수자의 위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사범대학 성소수자 예비교사)를 위한 세부 면담 질문을 개발하였다(<표 4> 참조). 심층 면담은 Seidman(2006)이 제시한 3단계 심층면담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1단계 면담에서는

<표 3> 반구조화 면담에 활용된 핵심 질문 (예시)

질문 영역	질 문 내 용
생애사	•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 고등학교 시절 성소수자 학생으로서 본인의 생활은?
	• 고등학교에서 성소수자의 위치는 어떠했나요?
교과 수업 경험	• 재학 중인 대학에서 성소수자 대학생으로서의 삶은 고등학교 때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을 지녔나요?
	• 사회·문화 및 생활과 윤리 수업에서 젠더/성소수자 관련 단원에 대한 (인상적인) 수업 경험을 회고해 주세요.
	• 당시 해당 교과서에 기술된/잠재된 (성소수자) 시민의 모습에 대해 어떠한 느낌을 받았나요?
젠더 관련 교과서 내용	• 담당 교사는 젠더 또는 성소수자 주제에 관해 어떠한 태도 또는 접근방식은 어떠했나요?
	• 2015 개정 교과서에 나타난 젠더/성소수자 관련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 당신은 젠더 평등(또는 성평등)은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가요?
	• 향후 교직에 진출했을 때, 젠더와 성소수자 개념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또 실제로 어떻게 가르칠 의향이 있나요

<표 4> 예비교사 면담에 활용된 검정 교과서 목록

개정기	교과서명	출판사명	교육과정 단위명 및 성취기준
2009 개정	사회·문화	- 미래엔, - 비상교육 - 천재교육	(4) 사회계층과 불평등 ⑤ 성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⑥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생활과 윤리	- 미래엔 - 비상교육 - 천재교육	(2) 생명·성·가족윤리 ① 성과 사랑의 의미 ② 성 차별과 성적 소수자 문제 ③ 성의 자기 결정권과 상품화 문제
2015 개정	사회·문화	- 미래엔 - 지학사 - 천재교육	(4) 사회계층과 불평등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나) 성취기준 해설 [12사문04-03]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성 불평등, 빈곤의 양상과 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는 인종, 민족, 국적, 신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생활과 윤리	- 미래엔 - 비상교육 - 천재교육	(2) 생명과 윤리 [12생윤02-03] 사랑과 성의 의미를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 윤리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가족윤리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가족 해체 현상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의 생애사와 연구문제에 관한 기초정보를 얻는 면담이 이루어지고, 2단계 면담에서는 선정된 교과서 내 관련 단원에 제시된 젠더 관련 내용을 면담 일주일 전 PDF 파일 형태로 연구참여자에게 제시한 후, 교과서에 담긴 젠더와 성소수자 내용에 관한 주관적 견해를 물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면담에서는 개별 면담 결과의 교차분석을 통해 획득된 정보들을 검토-확인하고, 1차 및 2차 면담 결과에 대한 재검토 및 젠더와 성소수자 관련 교육 방향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성찰을 유도하였다.

연구자는 심층 면담 과정에서 2022년 당시 고등학교 현장에 적용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와 더불어,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 4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사용했던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를 함께 살펴보았다. 심층 면담 과정에서 활용된 2009 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과서는 젠더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회탐구 영역의 <생활과 윤리> 및 <사회·문화> 과목 검정 교과서 각 3종이다. <표 3>은 젠더 관련 국가 교육과정 단위 및 성취기준, 그리고 면담에 활용된 교과서 목록을 보여준다.⁸⁾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를 면담에 활용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의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의 태도/분위기, 그리고 젠더 관련 수업 경험의 기억을 소환하고, 이를 함께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질적 면담 자료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자료 검토(member checking) 및 학교 현장의 관계자 2인(고등학교 현직교사 1인, 타 대학 성소수자 예비교사 1인)의 자료 검토

8)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고등학교 때 사용한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 활용하였으며, 출판사별 모든 교과서가 아닌 3종 교과서만으로도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peer debriefing)를 수행하였다.

IV. 성소수자 예비교사, 교과서 안 젠더를 말하다

고등학교 시절 젠더와 성소수자 개념 관련 수업 경험의 측면에서 네 명의 예비교사, 예슬, 누리, 유나, 혜성은 몇 가지 유사한 배경 요인을 공유하고 있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2014학년도에서 2018학년도 사이에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생활과 윤리> 및 <사회·문화>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둘째, 네 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해당 과목 수업이 전형적인 수능 중심 또는 입시 위주의 수업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묘사한 각 학교의 분위기(예: 면학 분위기, 학교 폭력 문제)는 조금씩 달랐으나, 사탐 과목 수업의 내용과 방식은 교사가 주도하는 수능 대비 강의식 수업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셋째, 젠더 및 성소수자 개념에 대한 학습은 <생활과 윤리> 및 <사회·문화> 과목을 통해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추가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1년에 한두 번 배정된 ‘성평등 교육’ 주간에 집체교육 형태의 외부전문가 특강, 글짓기, 현장체험활동 등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하에 성소수자 예비교사들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및 <사회·문화> 수업 시간에 대해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2009 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기 교과서의 젠더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연구자는 심층 면담 내용 분석을 통해 얻은 네 가지의 주제를 이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⁹⁾

1. 보이지 않는 성소수자: 젠더 개념의 축약과 삭제

성소수자 예비교사들이 배웠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는 ‘성 윤리’와 더불어 ‘성차별과 성적소수자 문제’를 주제로 한 중단원이 모두 들어있다(<표 4> 참조).¹⁰⁾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수업 내용에 비해 해당 단원 내용에 대한 기억이 상대적으로 또렷하다고 했다. 이는 고교 시절 성소수자 정체성을 이미 획득한 예비교사들이 교과서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예비교사들은 교과서의 내용 서술 방식에 대한 불쾌감을 언급하였는데, 그 불쾌감의 원인은 젠더 개념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 그리고 성소수자 개념 자체의 삭제에 있었다.

혜성: 제가 좋아하던 친구가 있어서 이걸(=결혼) 배우면서 그 친구랑 결혼하는 상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 그런데 조금 뽀

9)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교과서 젠더 내용에 대한 네 명의 예비교사들 간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하고자 함을 밝힌다. 연구참여자들은 젠더 정체성 면에서 서로 달랐으며, 일부 쟁점(예: 트랜스젠더에 대한 입장, 성소수자 교사의 책무)에 있어서 상이한 관점을 보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공식적 교육과정이 젠더 개념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이 공유한 관점을 우선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구참여자들이 보인 차이점과 다양성은 별도의 후속 연구를 통해 조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10) 연구참여자 중 누리는 유일하게 <생활과 윤리>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

가 슬퍼졌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간)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 (...) 결혼과 가족을 이렇게 좁게 설정해서 단원을 만든 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이런 걸 생각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남자 여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단원이 진행되고 있어요. (SB02_320-347)

연구참여자들은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성, 결혼의 개념이 이성애적 남녀 간의 결합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과서 본문에 등장하는 굵은 글씨의 ‘양성평등’은 이성애 규범성을 전달하는 암묵적인 신호였다. 그리고 예비교사들은 또 다른 이분법적 사고, 즉 젠더를 이성애와 동성애로 나누어 단순화하는 서술방식에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예슬: 일단 성소수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분법적이예요. 그러니까 이성애자 혹은 동성애자만 언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 소수자들은 일단은 아예 거의 언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외의 소수자들이 봤을 때 자신을 뭔가 그런 이분법에 가둬 놓을 것 같아서 그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YJ02_93-97)

누리: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쓴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 그래서 이 부분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 (...) 저는 일단 여성의 정체성은 있으니까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공감은 되는데... 저 말고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논바이너리(non-binary)라던가 트랜스젠더라든가 그런 입장에서는 여성과 남성으로 딱 용어를 나눠서 설명하는 것은

애매할 것 같고 ... 그냥 사회에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죠.

(HN02_115-129)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에 더하여, 성소수자를 동성애자로 단순화시키는 분류방식에 대한 불만은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의 성별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문제제기일 수 있다. 면담 과정에서 누리는 젠더 스펙트럼 개념을 더욱 확장시키는 ‘데미 로맨틱(demi-romantic)’ 개념을, 유나는 ‘그레이 젠더(gray gender)’ 개념을 연구자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이들은 여대 페미니즘 및 성소수자 동아리에서 격렬한 토론 대상이 되었던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과 트랜스젠더 논쟁,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다양한 젠더 스펙트럼을 인지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과 윤리> 및 <사회·문화> 교과서의 젠더 개념은 성소수자 예비교사의 모습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부실한 형태였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기의 <생활과 윤리>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아예 삭제되었고,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용 면에서 보수적인 성 윤리 및 결혼관을 중심으로 한 이성애 규범성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사회·문화> 교과서의 경우도, 대단원 ‘사회계층과 불평등’에서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불평등’ 중단원에서는 유리천장으로 대표되는 이성애 중심적인 여성 차별과 불평등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았다.

예슬: (사탐 교과서에서)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언급이 아예 안 됐다는 것은 그 인권 자체를 아예 무시하겠다는 뜻 같아서 (...) 아예 언급조차 안 해버리면 진짜 정말 그냥 ... 비가시화는 좀 너무 너무 후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YJ02_283-129)

유나: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소외감이라고 해야 될지 배제되었다고 해야 될지 (...) 그냥 교과서가 성소수자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 것 같아요. 교과서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결국 학생들도 선생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 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CY02_583-598)

연구참여자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에서 성소수자의 존재가 더 확실하게 지워지고 있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젠더 개념의 단순화와 축약은 교과서 지면의 제약, 그리고 고등학교에 적합한 내용 난이도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네 명의 예비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이 교실 안 청소년 성소수자의 눈높이 역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찬반 토론의 불쾌한 기억: 인권의 목적이 아닌 토론 거리로서의 성소수자

몇 년 전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 머리 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다면 그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특이하고 기억에 남을만한 장면이었을 것이다. 네 명의 예비교사 중 예슬과 유나는 <생활과 윤리> 시간에 벌어졌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찬반 토론의 불편한 기억을 어렵지 않게 소환해 주었다.¹¹⁾

유나는 바로 옆 반의 수업 시간에 진행된 ‘동성애 찬반 토론’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유나는 당시 학급 윤리부장이었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 시간에 찬반 토론 진행자의 역할을 담당했었고, 그 과정에서 옆 반 학생과 토론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었다고 했다. 담당 교사는 유나의 반에는 ‘결혼 전 성관계’를, 옆 반에는 ‘동성애’를 찬반 토론의 주제로 직접 배정하였다.

유나: 저희는 토론을 제가 주제를 했었는데 저희 반에서 그래서 옆 반 부장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는 무슨 주제로 토론을 했냐고 했더니 동성애 관련해서 찬반 토론을 했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지 않냐고. 애들이 그걸 왜 토론을 하냐고 하면서 좀 어이없어 했던 기억이 있어요. (...) 당시에 쿼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그걸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냐 하면서 안 좋게 봤었어요. (...)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찬반 토론을 했던 자체가 그 선생님께서 기독교인이셔서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이걸 말도 안 되지 않나 싶었어요. (CY01_355-365)

예슬은 <생활과 윤리> 교과서(천재교육)에 삽화 형태로 등장한 ‘퀴어 퍼레이드’를 소재로 한 토론 활동의 일화를 소개하였다. 퀴어

11) 예슬, 누리는 수업 방식 면에서 <생활과 윤리> 또는 <사회·문화> 담당 선생님이 수능 중심의 강의식 수업 방식을 일반적으로 고수했지만, 교사가 직접 제작한 학습지를 사용하거나, 가능한 범위 안에서 탐구학습이나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교과서 밖 사례를 곁들이는 수업을 진행하여 변화를 주고자 했다고 이야기했다. 유나와 혜성의 경우, 토론 수업이나 쟁점 중심 수업을 진행한 기억은 없으며, 문제풀이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고수했다고 평가하였다.

퍼레이드 축제를 놓고 담당교사가 학생들을 찬성과 반대 측으로 임의로 나눈 후 서로의 입장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찬반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은 한 마디로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예슬: 그 때 서울 퀴퍼(=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 찬반 토론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시니까 찬성과 반대 입장을 둘 다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대 입장이 너무 ...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 성소수자들을 혐오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 활동이 되게 뭔가 거부감이 많이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연구자: 그 때 그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슬: 완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웃음). 성소수자들의 성관계는 질병을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데, 사실 그게 딱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공격처럼 들리고, 그래서 뭔가 학교 수업에서 굉장한 혐오를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 아주 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연구자: 그럼 예슬이는 그때 토론 활동 때 어떤 입장을 선택했죠?

예슬: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선생님께서 찬성 반대를 번호순으로 나누셔서, 저는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반대 입장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YJ01_126-161)

유나와 예슬이 공유한 수업 일화는 성소수자 이슈 또는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가 인권 옹호라는 본질적 목적이 아닌 토론수업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연구에 참여한 네 명의 예비교사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쟁점 토론 또는 찬반 토론

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¹²⁾ 이는 마치 미국의 사회과 수업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아시아계 시민의 인권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 것과 흡사한 상황이었다. 특히 위의 면담 대화에 담긴 예술이의 수업 일화는 토론 수업의 주제 및 방법에 대한 면밀한 준비 없이 교사의 주도 하에 진행된 토론 수업이 성소수자 학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예술이는 위와 같은 찬성과 반대를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 성소수자는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시민”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3. 성소수자 개인의 노력이 중요해!: 사회구조-제도적 원인의 간과

면담 과정에서 성소수자 예비교사들이 주목한 젠더와 성소수자 관련 교과서 텍스트의 세 번째 특징은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의 관행에 대한 대응 방안 또는 해결 방식에 관한 서술이었다. 2009 개정 <생활과 윤리>의 경우, 성소수자가 겪는 다양한 ‘불이익’, ‘폭력’, ‘차별’ 등을 서술하며 성소수자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서술이 너무 피상적인 점,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현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지에 관한 서술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누리: 결국 인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생활과 윤리> 교과서

12) 천재교육 교과서는 67쪽 하단의 쟁점 탐구 활동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적나라하게 제공하며 찬반토론을 유도한 대표적 사례이다.

내용은) 그냥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학생들이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다. (...) 결국에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했을 때 인식 개선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HN02_355-365)

혜성: 저는 학생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문화 수업 시간에) 성불평등 단원을 다루고 나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남자 여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 먼저 이야기를 한 후, 성적 소수자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리고 성불평등 단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성소수자 불평등 사례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SB02_211-224)

누리와 혜성의 지적은 면담 과정에 함께 검토한 2009 개정 3종 교과서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서술 경향과 맞닿아 있다. 이 서술 경향은 바로 개인주의적 접근, 즉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들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서술에서처럼 혐오와 차별의 수준을 개인의 수준에서 개인과 일부 집단의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면담에 활용한 <생활과 윤리> 및 <사회·문화> 3종 교과서 모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는 활동을 담고 있지 않았다.¹³⁾ 혐오와 차별의 현황을 피상적으로

13) 단, 미래엔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73쪽에서 본문이 아닌 우측 날개 칼럼에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요약 제시함으로써 법률적·제도적 차원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제도적 또는 문화적 배경 및 원인에 대한 탐색의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서술 경향은 사회적 호모포비아, 다시 말해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차별과 불평등의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두 명의 예비교사들은 <사회·문화> 교과서의 ‘성불평등’ 단원 내용을 참고하여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 각 영역에 존재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다양한 형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교과서 내용이 서술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4. 평온한 것 같지만 두려운: 예비교사의 자기 검열과 타협

면담 과정에서 교과서의 젠더 텍스트를 성소수자 청소년이 아닌 성소수자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질문했을 때, 이성애 규범성을 강조하는 교과서 텍스트에 비판적이었던 예비교사들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유나: 이거를 제가 가르친다면, 여성과 여성이 결혼할 수 있고 남성과 남성이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간 번외 버전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는 잠깐만 알려줄 것 같아요. (...)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있지 않아서 해외 사례를 잠깐 끌어와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교과서에다 넣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별도로 교사가 이에 관한 활동을 하면 모를까, 교과서에 (동성 결혼)을 넣는 게 괜찮을까 하는

시사한 점에서 다른 2개 교과서와 차별성을 보였다.

생각이 드네요.

누리: 학생일 때 선생님이 교과서 비판하는 걸 보면 되게 쿨해 보였고 멋져 보였거든요. 근데 막상 교사가 된다고 하니까 교사 당사자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요즘은 이런 개념도 등장한다 정도로 살짝 돌려서 이야기해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연구자: 적극적으로 더 포용적인 젠더 스펙트럼을 가르치기보다는 조금 더 교사 입장에서 안전한 방법을 택한다는?

누리: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성소수자 단어가 금기시 되었는데, 안전한 길을 택할 것 같다는 것도 이제 그런 성소수자 혐오 세력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쪽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 솔직히 교사로서 극복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자면 두려워요.

(HN02_306-336)

본인이 교사가 되어 성소수자 개념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예비교사들은 현실적인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누리와 유나는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혐오 사건들을 의식하며 안전한 길을 걷는 방향으로 수업을 전개한다고 이야기했다. 유나와 혜성은 양성평등의 개념을 그대로 가르치면서 이와 별도로 성소수자 인권 관련 활동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¹⁴⁾

예비교사들의 이 같은 견해의 배경에는 그동안 학교 안팎에서 발

14) 특히 유나는 스스로를 래디컬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하였고, ‘트랜스젠더를 퀴어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여성 혐오와 차별의 문제점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이성애적인 양성평등도 유용하다고 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생한 성평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행위들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예비교사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에서 보수 이익단체 회원들이 보인 실력 행사,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집중보도한 학부모 민원 공포를 인지하고 있었고, 다양한 이익-압력단체에 둘러싸인 학교 사회가 교사에게 얼마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공간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학교 안에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나 따돌림을 경험하지는 않았고, 별다른 문제나 괴롭힘 없이 3년을 지냈다고 답하였다.¹⁵⁾ 그러나 유나와 예슬의 경우,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 등으로 페미니즘 논쟁이 한창이었던 2016년과 2017년 당시 페미니스트 성향의 발언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여학생들에 대한 일부 남학생들의 혐오 행위를 학교 안에서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고 했다.¹⁶⁾

유나: 제 레즈비언 친구가 페미니즘 관련 책을 <윤리와 사상> 시간에 읽었는데 그거를 보고 선생님께서 ‘그래 책을, 차라리 잡을 안 자고 책을 읽는게 낫다’라고 하셨는데, 그 여학생반에 나중

15)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굳이 주변에 알리지 않았던 네 명의 예비교사들은 혐오나 차별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고 그로 인해 비교적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냈다. 누리는 이를 ‘스스로 밝힌 적도 딱히 밝혀진 적도 없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냈다’는 말로 표현했다. 네 명의 예비교사들은 교직에 진출했을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와 비슷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16) 연구참여자들이 다녔던 네 고등학교 중 특히 유나의 학교에서 일련의 페미니즘 공격 또는 성희롱 사건이 가장 많았고, 학교 폭력 문제도 심각했다고 했다. 예슬, 누리, 혜성의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드물었다고 했다.

에 따로 남자애들 셋이 더 찾아와서 앞에서 욕하고 페미니즘 동아리 포스터 같은 것도 찢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 그 친구가 제가 게임에서 만났던 그 레즈비언 친구였어요. (...) 성희롱 사건도 있었고, 너무 사건이 많았습니다. (CY01_385-397).

연구참여자들이 고등학교 시절 보인 이 같은 공통적인 태도의 밑바탕에는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옹호해 줄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상담 시스템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었다.

유나: 어떤 ... 레즈비언으로 소문이 났던 친구를 보면서 괜찮을까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워낙 다 퍼져 있던 소문인데 ... 원하지 않은 커밍아웃이잖아요. (...) 그 때 저희 학교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학교 분위기가 1학년 때 한 반에서 (학교 폭력 문제로) 다섯 명씩 전학을 가고 ... 그런 분위기였어요. (...) 그래서 더 조심했던 것 같아요. 저도 소문 안 나게. (CY01_182-198)

누리: 제가 학교 다니면서 경험한 것도 클래스 상담이나 담임선생님한테 정체성에 관한 걸 이야기했을 때도 “그냥 네가 아직 어려서 고민 중이라 그런 거야”라는 대답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학교 상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뢰가 없어요. (HN01_299-301)

유나의 면담 내용에서처럼, 학교 분위기는 성소수자 학생의 평온한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학교 분위기와는 별도로 네 명의 예비교사들이 지닌 학교 생활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고등학교 내부에서 성소수자 학생들 간의 모임이

나 연대를 경험하지 못했고,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지 해주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성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성소수자 친구들과의 교류는 SNS나 온라인 게임과 같은 가상 플랫폼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편이었고, 유나의 경우처럼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친구를 오프라인에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고교 재학 중에 성소수자 친구들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고 예비교사들은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리고 누리의 면담 내용과 같이, 학교 내부의 상담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담임반에 있는 성소수자 학생에게 전문적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V. 결론 및 논의

이제까지 우리는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네 명의 성소수자 예비교사들이 고등학교 시절 젠더 관련 단원에 대한 학습의 기억, 그리고 교과서 내 젠더 개념 구성 방식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소수자 예비교사들은 고등학교 선택과목 <생활과 윤리> 및 <사회·문화> 교과서가 복합적인 개념으로서의 젠더 스펙트럼을 과대 단순화 및 축약하고 있거나, 성소수자 집단의 존재를 삭제하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교과서의 성소수자 개념이 시민의 권리, 인권 옹호의 목적 그 자체로 서술되기보다는 찬반 토론의 소재로, ‘쟁점’ 또는 ‘문제’ 현상으로 활용되는 수업 행위를

비판하고, 그러한 행위가 성소수자 학생에게 잠재적인 트라우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교과서가 성소수자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을 보인 점을 아쉬워하며, 혐오와 차별의 관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회구조적, 제도적 또는 역사적 차원에서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교사의 위치에서 젠더 개념을 수업 주제로 다룰 경우 자기 검열과 타협을 통해 안전한 길을 택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정치적·사회적 분위기와 학교 안 성소수자 지지 및 상담 시스템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었다.

네 명의 성소수자 예비교사들의 젠더 관련 수업 기억과 교과서 젠더 텍스트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분석한 본 연구의 발견점을 한국의 성소수자 예비교사들의 특징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 젠더 교육, 그리고 시민교육에 몇 가지 중요한 함의 및 추수 연구의 방향을 제공해 준다.

그 첫 번째의 함의는 조대훈(2006)의 연구 등에서 주목한 성소수자 주제에 대한 ‘영 교육과정’ 현상의 실행과 관련이 있다. 본 사례 연구는 성소수자의 존재와 인권의 영 교육과정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 그에 관해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소수자가 교육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삭제될 때, 교과서의 젠더 개념은 왜곡된 젠더 개념에 기초한 불완전한 성평등 개념으로 변질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실 안 성소수자 청소년에게는 트라우마를, 다수의 이성애자 청소년들에게는 이성애 규범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태도를 주입시킬 수 있다.

둘째, 본 사례 연구에서 성소수자 예비교사들이 보인 교수적 자기 검열과 타협의 견해는 학교 안 성소수자 학생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또는 폭력에서 안전한 듯 보일지라도, 그 평온함의 이면에는 올바르고 바람직한 성 윤리라는 이름의 이성애 규범성이 규율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성애 규범성의 규율 권력은 비이성애적 성향이 돌출되는 곳을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성소수자 학생과 교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다. 성소수자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학교 안팎의 분위기는 성소수자 학생과 교사들에게 침묵하도록 하고, 암묵적인 자기 검열을 수행하도록 하며, 젠더와 성소수자 주제에 관한 영 교육과정이 교실에 뿌리내리도록 만든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성소수자 예비교사들의 목소리는 학교 안 성소수자 청소년 및 성소수자 교사에 대한 지지 및 지원 네트워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지원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시급히 요청한다.

셋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교과서 젠더 개념의 해석에 대한 성소수자 예비교사들 간의 공통분모에 더욱 주목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자의 의도는 역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내포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동일 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 성소수자 대학생들이었으며, 젠더 스펙트럼 면에서 남성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지닌 예비교사들이 연구설계 상 제외되었다. 그로 인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다양한 성별 정체성의 연구참여자들이 관련 수업 경험 및 교과서 해석의 관점 면에서 어떻게 다르거나 유사한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를 갖지 못

했다. 또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연구참여자들 간에는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여기에는 최근 한국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이슈로 떠오른 ‘TERF’, 즉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적 페미니즘(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m)에 대한 입장 차이도 포함되었다. 성소수자 예비교사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소수자 집단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연구 수행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2022 개정 교육과정기 <생활과 윤리> 및 <사회·문화> 교과서가 포용적 젠더의 개념 그리고 소수자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이전 교과서들보다 더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성소수자 주제는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가 아닌, 소수자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그리고 동등한 시민의 모습으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과 성소수자 개념이 교육부의 직권으로 삭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각 출판사와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자기 검열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성소수자를 소수자라 부를 수 있고, 성소수자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말할 수 있는 교과서의 탄생은 단지 교과서 개발자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교육계 안팎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치적 연대와 투쟁, 혐오와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관련 입법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구정화(2013). 초등교사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 **시민교육연구** 45(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1-53.
- 구정화(2015). 사회·문화 교과서의 사회적 소수자 내용에 대한 분석. **다문화 교육연구** 8(4). 한국다문화교육학회. 1-27.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2014).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기든스, 앤서니, 필립 서튼(2018). **현대 사회학**(제8판). 김미숙 외(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Giddens, Anthony & Sutton, Philip W.(2017). *Sociology* (8th ed.). Polity.]
- 김지수·박선웅(2022). 성소수자에 대한 정서적 포용을 향하여: 비극 서사에 기반한 교육 연극 수업의 실천. **시민교육연구** 54(4).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36.
- 라일, 로빈(2014). **젠더란 무엇인가**. 조애리, 강문순, 김진옥, 박종성, 유정화, 윤교찬, 이해원, 최인환, 한애경(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Ryle, Robin.(2011). *Questioning Gender: A Sociological Exploration* (1st ed.). New York: Sage.]
- 박가나(2016). 사회과 교과서의 사회적 소수자 관련 내용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중·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5(2).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71-91.
- 박선운, 박윤경(2021).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다문화 시민 교육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53(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9-58.
- 버틀러, 주디스(2008). **젠더 트러블**. 조현준(옮김). 파주: 문학동네. [Butler, Judith (1990). *Gender Trouble*. New York: Routledge.]
- 버틀러, 주디스(2015). **젠더 허물기**. 조현준(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Butler, Judith (2004). *Undoing Gender*. New York: Routledge.]
- 설규주(2013). 교과서 속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연구: 2009 개

- 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6(3). 한국다문화교육학회. 55-83.
- 신경희(2018). 성소수자 친화적 다문화 교사교육을 통한 예비교사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6(2). 한국열린교육학회. 81-101.
- 신경희(2019). 성소수자 예비교사의 현장실습 경험 분석 연구. **교육문화연구** 25(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485-508.
- 심상보(2014). 홀리스틱 영 교육과정 관점으로 본 인권교육: 성 소수자를 중심으로. **홀리스틱교육연구** 18(3).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75-91.
- 마텔, 애슐리(2017). **LGBT+ 첫 걸음**. 팀 이르다(옮김). 서울: 봄알람. [Mardell, Ashley(2016). *The ABS's of LGBT+*. Coral Gables, FL: Mango Media.]
- 우현정, 박선웅(2018). 사회·문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 분석: 인권 감수성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1(2).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31-59.
- 조대훈(2006). 침묵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과교육. **시민교육연구** 38(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11-239.
- _____(2011).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의 영향 변인 연구: 다문화교육과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43(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5-237.
- _____(2022). 교과서 안의 젠더: 페미니즘 관점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젠더 개념 분석. **국제이해교육연구** 17(3).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163-193.
- 주재홍(2017).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알게 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질적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3(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75-215.
- 한국성소수자연구회(2019).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성소수자 혐오를 넘어 인권의 확장으로**. 파주: 창비.
- Bickmore, Kathy(2002). How Might Social Education Resist Heterosexism? Facing the Impact of Gender and Sexual Identity Ideology on Citizenship.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0(2). 198-216.
- Bogdan, Robert and Biklen, Sari K.(2007).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5th ed.). Boston, MA: Pearson Allyn and Bacon.
- Cochrane, Kira(2013). *All the Rebel Women: The Rise of the Fourth Wave of Feminism*. London: Guardian Books.
- Chamberlain, Prudence(2017). *The Feminist Fourth Wave: Affective Temporality*. London: Palgrave Macmillan.
- Crocco, Margaret. S.(2002). Homophobic Hallways: Is Anyone Listening?.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0(2). 217-232.
- Conrad, Jenni(2020). Navigating Identity as a Controversial Issue: One Teacher's Disclosure for Critical Empathic Reasoning.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48(2). 211-243. DOI: 1080/00933104.2019.1679687.
- Ferfolja, Tania (2018). Young LGBTQ Teachers: Work and Sexual Citizenship in Contradictory Times. *Youth, Sexuality and Sexual Citizenship*. Peter Aggleton et al. (eds.). London: Routledge. 203-216. DOI: 10.4324/9781351214742.
- Graves, Karen L.(2009). *And They Were Wonderful Teachers: Florida's Purge of Gay and Lesbian Teacher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Jackson, Janna M.(2007). *Unmasking Identities: An Exploration of the Lives of Gay and Lesbian Teachers*. Lanham, MD: Lexington Books.
- Kvale, Steinar(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s, CA: Sage.
- LeCompte, Margaret D. and Preissle, Judith(2003).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2nd ed). New York: Academic Press.
- Mayo, Cris(2016). Queer Lessons: Sexual and Gender Minoriti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9th ed.). James. A. Banks and Cherry A. McGee Banks (eds.). Hoboken, NJ: Wiley. 132-150
- Seidman, Irving(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Seidman, Steven(1996). Introduction. Steven Seidman (ed.), *Queer Theory/Sociology*. Cambridge, MA: Wiley-Blackwell. 1-29.
- Simons, Jack D., Hahn, Sarah, Pope, Mark, and Russell, Stephen T.(2021).

Experiences of Educators Who Identify as Lesbian, Gay, and Bisexual. *Journal of Gay & Lesbian Social Services* 33(3). 300-319. DOI: 10.1080/10538720.2021.1875947.

Thornton, Stephen J.(2002). “Does Everybody Count as Human,”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0(2). 178-189.

Wright, T., Smith, N. J., & Whitney, E. (2019). LGBT Educators’ Perceptions of Safety and Support and Implications for Equity-oriented School Leaders. *Journal of Educational Leadership and Policy Studies*. 3(2). Retrieved May 10, 2023 from <https://files.eric.ed.gov/fulltext/EJ1233796.pdf>

<자료>

오마이뉴스. 2022. 10. 8일자. ‘난장판’ 교육부 교육과정 공청회, 결국 폭력까지 ... <https://omn.kr/212l9>

중앙일보. 2022. 11. 9일자. 국교위,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빼 교육과정 의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5806>

한겨레21. 2014. 10. 15일자. 동성애 조장하는 교과서, 뜯어고쳐라?.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116.html

Abstract

LGBTQ Preservice Teacher Perspectives on Gender Representation in High School Textbooks

Jho, Daehoon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was to analyze the perceptions and perspectives of four LGBTQ pre-service teachers on gender-related units of high school textbooks, <Life and Ethics> and <Society and Culture>, using in-depth interviews. The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ur pre-service teachers saw that the textbook oversimplifies and abbreviates the gender spectrum, which is a complex concept, and tends to erase the existence of LGBTQ groups from the textbooks. Second, the study participants pointed out the tendency of the LGBTQ concept to be used as a tool for discussion rather than as an object of human rights advocacy and the relevant problems. Third, it was argued that the textbook tended to exhibit an individualistic approach toward the issues of hate and discrimination against LGBTQ people, and lacked a macro (social structural, institutional or historical) approach to the causes and solutions of those harmful practices. Fourth, participants demonstrated the potential for self-censorship and compromise when addressing gender concepts as a classroom topic,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climate of homophobia and discrimination against LGBTQ people and the lack of LGBTQ support and counseling systems in school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the actual effect of the null curriculum phenomenon in local classrooms, the follow-up research on LGBTQ preservice teachers, and the on-going 2022 revised curriculum textbook development process.

Key words : Gender, Gender Education, LGBTQ Preservice Teacher, Human rights for LGBTQ, Textbook

투고신청일: 2023. 11. 07

심사수정일: 2023. 12. 05

게재확정일: 2023. 12. 18.